양계 안테나

김 용 화
(본지 편집장)

'99하반기 양계경기 소비부진 복병 피해야

금년에는 무더위가 추석전까지 기승을 부려 양계인들은 "계사내 온도관리에 신경을 쓰느라 골병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이다.

기온이야 자연이 만들어 주는 결과이니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다지만 계란과 육계가격마저 흔들려 무더위 만큼이나 양계인들을 곤욕스럽게 하였다.

양계경기는 대략 두가지 요인에 따라 변동이 생긴다. 생산증가와 소비부진을 들 수가 있다. 모두 양계산업에 있어 복병이라 할 수가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급격한 생산증가 요인이 뚜렷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하가격이 낮아 문제가 되었다.

양계인들은 양계업계의 내적 변화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유통부터 수입, 소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변화에는 다소 둔감한 편이었다. 과거에는 계란과 닭고기가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격을 낮추어 소비를 증가시키는 자연발생적인 기능에 따라 시장기능이 조절되었기 때문에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나빠지면 생산량이 감소하여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일을 반복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간접 시설이 발전하여 출하가가 대폭 낮아지면 계란이나 닭고기가 냉장내지 냉동창고에 비축이 되는 양이 증가하게 되었고, 값싼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되어 마진

만 괜찮으면 언제든지 방출되는 여건이 갖추어져 양계인을 괴롭히게 되었다.

금년의 경우 계란은 냉장 비축량이 대폭 증가하여 시장호름이 바뀌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채란양계인들은 무더위로 생산성이 저하되었고, 경기가 호전되면서 추석전 경기는 안정권에 접어들 것이란 낙관론을 가졌지만 결과는 예측을 벗어나 서로에게 원망만 퍼붓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정확한 소비예측으로 적정한 양계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자율생산 체제하에서는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마진에 따라 생산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절이 되어지게 마련인데 그래프 상으로 본다면 최고점과 최하점의 기간을 어떻게 연장하거나 단축시크느냐가 관건이다.

애써 경제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차원에서 일치단결되었던 화합의 분위기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과잉생산 체제로 반전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 걱정 아닌 걱정이 앞서고 있다.

생산에 참여하는 양계인의 수는 많기도 하거니와 전국에 산재해 있어 신속한 여론 집약에도 한계가 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도 이에 역행하려는 경향까지 있어 적정한 가격유지를 위한 대안 마련에는 늘 괴리가 있게 마련인 셈이다.

여기에 변화되는 제반여건까지 살피지 않는다면 시련의 골은 더욱 깊어만 질 것 같아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양계인 본인들이 생산량 결정을 자율적으로 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계란의 식품 안전성 확보 소비자 요구에 앞서 사전대비해야

우리나라에서 연간 생산되어 소비되는 계란의 양은 대략 90억개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식품공전 규정에는 알가공품에 대한 규격은 명시되어 있으나 껍질이 있는 식란에 대해서는 예외로 되어 있었다.

지난번 수입개란이 통관될 때 식란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관능검사로 대처하였다 하여 지적이 되면서 이를 계기로 식란에 대한 성분규격은 물론 보존 및 유통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대한 결과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기준이 세워져야 애매모호한 검사결과로 인한 구설수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미 세계 각국이 안전성에 관한한 규제를 강화해 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한다. 당장은 기준에 따라 생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제로부터 오는 번거로움으로 거부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나 만일 섭취해도 건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결과가 나와도 기준이 없으면 유해한 식품으로 매도될 수가 있어 안전성에 대한 기준과 검사가 강화되는 한 분리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음을 십분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란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 마련을 놓고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한 끝에 농림부가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듯하다. 다행히 축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넓은 주무부서에

서 관장을 한다는데 다소는 안도감이 생긴다.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을 폭넓게 관찰하고 자료를 관련업계로부터 수집하여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되도록 의견을 집약시켜야 할 것이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되풀이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보호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하게 된다. 기준을 만들기 위한 기준을 만든다면 생산자는 범법자로, 소비자는 외면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거듭 되새겼으면 한다.

생산성 저하 걱정에 앞서 질병발생 억제 노력에 동참해야

몸 아픈 것처럼 서글픈 것이 없다. 이는 사람이 경험을 통하여 느끼는 바다. 아마 닭도 질병에 걸려 체력이 저하되거나 폐사될 정도라면 거의 같은 느낌을 갖지 않을까 생각된다.

인간은 아프면 병원에라도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식물인간이 되어도 끝까지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리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치료에 매달린다. 결국 집념 때문에 예방약이 나오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세월이 흐를수록 생명이 연장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닭은 병이 생겨 자라지 못하거나 알 낳는 것이 시원찮으면 그날로 목이 날아가는 비운을 겪게 되는데 주인마저 커다란 손실을 입게된다. 즉 다 키워놓은 닭 잃고 돈 날리는 셈이다. 결과는 아픈 마음 뿐이다.

그렇다면 닭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면 간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쉽게 해결이 안되어 고민을 하게 된다. 해서 안되는 일도 있지만 대개 닭이 질병에 걸리는 농장은 농장주의 관심이 적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 양계인들의 지적이다.

병원체가 닭에게 침입하도록 환경적 요건을 만들어 주었다는 설명이다. 물론 고의로 방치하는 양계인들은 없겠지만 결과가 그렇더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 대목에서 양계인들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즉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는 지적을 하고자 한다.

질병이 발생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막연히 어떻게 하면 닭이 질병에 안걸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나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지, 어떻게 해야 질병에 안걸리겠나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 늘 초조하고 불안하다.

제아무리 자기네 아이들 예방접종 잘했다고 큰 소리쳐봐야 이웃 아이들이 예방관리를 하지 않아 질병에 걸려 문제가 있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와 다를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선진 의식을 가진 집단일수록 행위에 대한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한다. 그러나 후진국형 의식을 가진 집단은 남의 탓으로 돌린다. 결국 해결되는 일은 없고 같은 일만 되풀이 되게 마련이다.

곧 양계업계에서 방역대책이 세워지길 바라며, 계획이 세워지면 자기의 입장을 좀 진정시키고 결정된 사항을 같이 준수해 가려는 성숙된 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양계